

##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

### Q방법론적 연구

**김 명 애**

(계명대학교)

**박 은 실**

(대구과학대학교)

**남 승 희**

(계명대학교)

**박 은 아\***

(부경대학교)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역할 학습 및 인지능력, 사회성 발달과 관련이 있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등 부부관계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유형과 그 유형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32개의 Q진술문을 34명의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3개의 유형 ‘관용적 수용형’, ‘수용적 표출형’, ‘감정적 수용형’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수용적이며, 자녀양육에 있어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녀의 친구관계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을 공통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양육태도, 학령전기, 아버지, Q방법론

\* 교신저자: 박은아, 부경대학교(soundness@pknu.ac.kr)

■ 투고일: 2014.1.15    ■ 수정일: 2014.3.3    ■ 게재확정일: 2014.3.2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및 출산율 저하 등의 급격한 시대적·문화적 변화로 근대적 부모상이었던 아버지의 생계부양자로서의 기능적 역할과 어머니의 주부로서의 표현적 역할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권인수, 2013). 핵가족화 된 가정의 아버지는 이전 세대의 아버지보다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었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발달이나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Rina & Feinberg, 2012). 이는 현대의 아버지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더 이상 어머니의 보조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새로운 아버지 상'으로 양육과 집안일뿐만 아니라 아동과의 상호작용이나 신체적 간호제공 활동을 수행(McGill, 2011)하는 등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버지 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으로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놀이 활동이나 일상적인 돌보기를 위해 집에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는 근무시간이 유연하지 않아 퇴근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 직장상사와 가정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아동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의 양과 질은 자녀의 모든 발달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ilson & Prior, 2011). 특히 정규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취학 전 시기인 4-6세까지의 학령전기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흥미분위로 행동하며 주위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발달된다. 따라서 질문이 많아지고 사회성이 발달하여 단체생활에서 요구하는 협동 방법도 배우고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적응하며, 좌절과 분노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이다(김미예 외, 2010). 학령전기 동안 아버지와와의 애정적이고 원만한 관계는 아동의 정서조절 및 대처기술을 발달시키고 긍정적 정서표현과 감정이입능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상 외, 2013).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기초로 성정체감과 자아 발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McGill, 2011)는 점에서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동발달과 어머니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아동발달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와 대인

문제 해결능력과 같은 심리사회적 발달(Whiteside-Mansell et al., 2008; 강상 외, 2013), 행동 발달(Sarkadi et al., 2008), 공감, 자기통제감, 자아존중감(안라리 외 2013)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버지는 어머니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아동에게 제공하여, 보다 폭넓고 역동적인 자극을 접하게 함으로써 적응적인 발달을 성취하도록 한다(이영미 · 민하영, 2006). 특히 남아에게는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사람에게 대한 애착안정성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또래를 수용하고 사회적인 기술을 발달시켜 공격적 행동이나 강한 분노 등을 조절하게 해주고(Newland et al., 2008), 불안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Liber et al., 2008). 아버지로부터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을 받은 자녀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서로 협력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양경수, 2011), 아버지로부터 거부, 방임,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경험이 많았던 자녀는 이후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eve et al., 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켜 부부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고(허보윤 · 한경자, 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유발하는 밀바탕이 되며(김종훈 외, 2013), 부부 간의 결혼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채진영, 2011). 그러나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보내는 시간에 대한 비교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고(Craig, 2006),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문제나 자녀를 데리고 건강관리 센터를 방문하는 등의 문제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수동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Wells & Sarkadi, 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아버지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태도(조하영 · 박성연, 2013), 아버지의 직장환경, 육아휴직제도 도입여부(Wells & Sarkadi, 2012), 자녀의 성별과 수(채진영, 2011), 결혼만족도(Bailey et al., 2009)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양육태도는 부모가 그들이 속한 문화양식 내에서 나타내는 내현적 · 외현적 태도의 경향성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취하는 보편적인 행동양식을 말하는 것(김영희 · 김신정, 2008)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즉, 양육자가 어떠한 생각 혹은 방향성을 지니고 자녀를 양육하는가에 따라 자녀의 발달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와 다르고, 이러한 차이로 아동은 상호보완적인 양육유형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Fagan & Palm, 2004). 지금까지의 양육태도 관련 연구가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심으로 연구되고 아버지의 양육관련 연구가 미흡한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협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과 더 본질적으로는 아동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있었기 때문이다(현정환, 2004). 따라서 아버지가 실제로 자녀에게 애정이나 밀접한 애착관계 등을 형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Wilson & Prior, 2011)는 점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가정관리학, 보육학, 아동간호학 등에서 연구되고 있고(권인수, 2013), 주로 어머니와의 비교(Gaertner et al., 2007; 강상외, 2013), 어머니의 출산의도(신나리, 2013), 아버지 자신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탐구(김정주 · 김용미, 2011; 조하영 · 박성연, 2013), 자녀의 자아존중감(안라리 외, 2013)과 정서 및 건강(김원자 · 서경현, 2013; Mallan et al., 2013) 등의 양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Q방법론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단점을 보완한 연구방법으로 응답자가 가지는 주관적인 세계를 보다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응답자 간의 인식을 유형화할 수 있어(김홍규, 2008) 특정 계층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논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다(장수미 · 황영옥,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학령전기 아동을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여성적 관점에서 가족관계와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남성의 입장에서 본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를 조명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과 그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유형화한다.

둘째,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양육태도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 2. 표집 방법

#### 가. Q모집단 및 Q표본의 선정

Q모집단은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느낌 또는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로서 문헌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하게 된다. Q표본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으로, Q표본의 선정은 통합체가 완성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Q표본은 학령전기 아동을 둔 부모 대상 면접 자료와 관련이론·관련문헌을 참고로, 양육방식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차원인 Rohner 외(2005)의 부모 수용-거부 이론에 입각하여 김명애 외(2013)가 작성한 32개의 진술문이다.

#### 나. P표본의 선정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으로 주관성을 강조하는 연구방법이다. 이는 P표본의 수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P표본이 커지면 한 요인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통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 표본 이론을 따르며, 보통 진술문의 수와 비슷한 P표본의 수를 이상적으로 본다(김흥규, 2008). 본 연구에서 P표본의 선정기준은 출생 시 만삭아로 신장과 체중이 정상 범주 내에 있고 기형이나 건강문제가 없었으며, 현재 만성질환이 없고 정상적인 성장·발달 상태에 있는 4-6세 사이의 학령전기 자녀를 둔 30·40대 아버지 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P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Q연구에 유용하므로(김흥규, 2008),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아버지를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에 앞서 연구대상자에게 주제에 대한 관심 배경 및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대상자는 자의로 연구에 참여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 다. Q표본 분류 및 자료 분석 방법

Q는 특정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Q표본들이 한 사람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P표본인 응답자는 Q표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적인 의미의 중요성에 따라 각각의 표본들을 배치해야 한다(김흥규, 2008). 따라서 Q표본 분류는 진술문을 연구대상자들의 상대적인 의미의 중요성에 따라 강제 분포시키는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진행하였다. Q분류가 끝나면 주어진 분포도에 자신이 배열한 Q표본의 번호들을 기입하게 한 후, 응답자의 의사를 가장 강하게 반영해 주는 양 극단에 위치한 항목에 대해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함으로써 응답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추후 해석 시 연구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김흥규, 2008).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Q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34명의 P표본에게 32개의 Q표본(진술문)을 인쇄한 카드를 제공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한 후 가장 동의(+), 중립(0), 비동의(-)로 분류시켰다. 그리고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부터 차례대로 골라 바깥에서부터(+3)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여 중립부분에서 마무리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비동의 하는 진술문을 분류케 하였다. 이 때 양 끝(-3, +3)에 위치한 각각 2개의 진술문들에 대해서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서술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자녀수, 자녀성별, 직업, 교육수준, 경제상태, 어머니의 자녀양육 협조 정도를 질문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표 1>.

자료의 분석은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Q요인분석은 주요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결정을 위해 아이겐 값(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와 총 설명 변량 등을 고려하여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유형을 선택하였으며,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표준점수(Z-score)를 사용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에서 긍정이나 부정적인 면에 동의한 항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Q요인별 특성을 서술하였다. 해석할 때에는 Q요인 분석에서 제시되는 각 Q요인별로 강한 동의 또는 비 동의를 보인 항목, Q요인 간 일치항목, 타 Q요인과 비교해서 높게 동의 또는 낮게 동의한 항목, Q분류 시 P표본이 강한 긍정과 부정을 보였던 항목에 대해 이유를 기술한 자료, 기존문헌과 일반적 특성 자료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기술하였다.

#### 1. Q유형의 형성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표 1>. 전체 연구대상자 34명 가운데 제 1유형에 속한 사람이 26명, 제 2유형이 4명, 제 3유형이 4명으로 분류되었다. 어머니의 자녀양육협조 정도는 매우 비협조적, 대체로 비협조적, 보통, 대체로 협조적, 매우 협조적으로 나누어 자신의 아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질문하여 조사하였다.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속한 유형의 전형적인 혹은 이상적인 사람으로서 그 유형을 대표한다.

이들 세 개 유형은 전체 변량의 52.1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 설명력은 제 1유형이 39.7%, 제 2유형이 6.74%, 제 3유형이 5.67%로 나타났다<표 2>.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제 1유형과 제 2유형의 상관계수는 .401, 제 1유형과 제 3유형의 상관계수는 .194,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309이다.

## 2.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별 특성

각 유형이 자신에게 가장 긍정적(동의함) 또는 가장 부정적(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선택한 진술문 중 유형별 표준점수가  $\pm 1.00$  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유형별 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양 끝(-3, +3)에 위치한 각각 2개의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험 상황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 가. 제 1유형: 관용적 수용형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4명 중 26명으로, 평균 나이 37.03세, 자녀수는 1-3명 이었고, 배우자의 자녀양육 협조정도는 대체로 협조적 이상이 22명, 보통이 4명이었다.

제 1유형이 크게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아이를 대할 때 따뜻하고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한다( $Z=1.84$ )’, ‘아이가 무슨 일을 잘 했을 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 $Z=1.77$ )’,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는 데까지는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애쓴다( $Z=1.73$ )’,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방해하지 않고 마음껏 하도록 둔다( $Z=1.43$ )’, ‘아이에게 ‘네가 있어 기쁘다’는 등의 말을 표현한다( $Z=1.17$ )’에 가장 동의하고 있다. 반면 ‘아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화부터 낸다( $Z=-1.98$ )’, ‘아이 때문에 화가 날 경우 아이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Z=-1.66$ )’,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서 불평한다( $Z=-1.21$ )’,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거르는 때가 있다( $Z=-1.05$ )’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 즉, 표준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아이를 대할 때 따뜻하고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 한다’, ‘아이에게 알맞은 음식을 해주고 있다’,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는데 까지는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애쓴다’였고, 타 유형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날 경우 아이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외락 성을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 ‘집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하면 짜증을 낸다’의 순이었다.



제 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0.10을 나타낸 연구 대상자 13명은 아이가 질문을 해 올 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야 아이가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아이를 대할 때에도 가급적 눈 맞춤을 통해 아이에 대한 사랑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며, 체벌에 대해 완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설명을 통해 아이의 동의를 얻어내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자 가중치가 2.42인 16번 대상자는 아이에게 인성교육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귀찮더라도 하게 하는데 이는 기본을 잘 다져 놓으면 다른 것들은 차근차근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이가 무슨 일을 잘 했을 때 칭찬을 통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이의 자신감을 길러 다른 일들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아이에게 온정적이고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아이의 안목에 맞추어 답해주며, 아이가 하는 일에 대해 격려하며 자존감을 키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때리는 등의 행위를 절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유형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 1유형을 '관용적 수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1.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기중치

유형	대상자 번호	연령	자녀 수	자녀 성별	직업	교육 수준	경제 상태	어머니의 자녀 양육 협조 정도	인자 가중치
유형1 (N=26)	13	39	1	여	회사원	대졸	중	보통	10.10
	16	34	2	남	자영업	대졸	상	대체로 협조적	2.42
	11	38	1	여	전문직	대학원졸	상	매우 협조적	2.42
	2	32	1	남	공무원	대졸	하	매우 협조적	2.17
	34	33	1	남	회사원	대졸	상	매우 협조적	2.04
	20	32	2	남	자영업	고졸	상	대체로 협조적	1.82
	12	40	2	여	회사원	고졸	상	대체로 협조적	1.62
	18	31	2	여	전문직	대졸	하	매우 협조적	1.58
	3	33	1	남	공무원	대졸	상	매우 협조적	1.50
	7	43	2	남	회사원	고졸	상	대체로 협조적	1.47
	23	34	2	여	회사원	대졸	중	대체로 협조적	1.34
	21	37	1	남	회사원	대졸	상	매우 협조적	1.16
	24	36	2	남	회사원	대졸	중	대체로 협조적	1.16
	4	35	2	여	회사원	대졸	상	대체로 협조적	1.07
	33	41	1	남	회사원	대졸	상	대체로 협조적	.97
	9	36	1	남	공무원	대학원졸	상	보통	.96
	30	47	2	여	전문직	대졸	상	대체로 협조적	.96
	26	42	2	남	공무원	대졸	중	매우 협조적	.94
	32	36	2	남	회사원	대졸	상	매우 협조적	.94
	25	37	1	남	회사원	대졸	중	매우 협조적	.90
	15	36	2	여	전문직	대학원졸	하	보통	.87
	5	38	1	여	공무원	대졸	상	매우 협조적	.87
	19	37	3	여	전문직	대졸	상	매우 협조적	.83
	6	38	2	여	회사원	대졸	상	대체로 협조적	.75
	29	41	3	남	회사원	대졸	상	대체로 협조적	.56
	8	42	1	남	회사원	대졸	상	보통	.40
유형2 (N=4)	14	39	2	남	전문직	대졸	중	대체로 협조적	1.16
	10	35	2	남	회사원	대졸	하	대체로 협조적	1.14
	17	35	2	남	회사원	대졸	중	보통	.70
	31	38	2	여	자영업	대졸	상	보통	.47
유형3 (N=4)	27	39	2	여	전문직	대학원졸	중	보통	.99
	1	36	1	남	공무원	대졸	중	매우 협조적	.90
	22	37	2	여	회사원	대졸	상	대체로 협조적	.87
	28	34	2	남	자영업	고졸	상	매우 협조적	.57

표 2.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유형 1	유형 2	유형 3
아이겐 값	13.4996	2.2902	1.9264
변량	.3970	.0674	.0567
누적 변량	.3970	.4644	.5211

표 3.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1			
유형2	.401		
유형3	.194	.309	

#### 나. 제 2유형: 수용적 표출형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4명 중 4명으로, 평균 나이 36.75세, 자녀수는 2명이었고, 배우자의 자녀양육협조 정도는 대체로 협조 2명, 보통 2명이었다.

제 2유형이 크게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아이 때문에 화가 날 경우 아이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Z=2.32$ )’,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방해하지 않고 마음껏 하도록 둔다( $Z=2.07$ )’, ‘아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다( $Z=1.16$ )’,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는데까지는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애쓴다( $Z=1.09$ )’,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와락 성을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 $Z=1.00$ )’는 것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반면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 불평한다( $Z=-1.56$ )’, ‘자녀양육이 즐거울 때보다는 짐스러운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 $Z=-1.54$ )’, ‘아이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Z=-1.48$ )’, ‘아이에게 해주기로 한 일들을 잊어버린다( $Z=-1.28$ )’, ‘아이에게 알맞은 음식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Z=-1.15$ )’,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아이 혼자 TV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Z=-1.11$ )’는 것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 즉, 표준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날 경우 아이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아내보다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아이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였고, 타 유형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인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아이 혼자 TV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아이에게 알맞은 음식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부정하고 있었다.

제 2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16을 나타낸 14번 대상자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마음껏 하게 하면 이를 바라보는 자신도 행복한 마음이 들고, 아이 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은 친구끼리 함께 놀면서 사회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려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훈육차원에서 아이를 심하게 때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자 가중치가 1.14인 10번 대상자는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데 까지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애쓰는데 이는 순간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주어 객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아이 인생의 절반을 부모가 책임진다는 것이므로 아이가 너무 버릇이 없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간섭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즉,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아이의 친구관계나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녀양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즐겨한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 때문에 화가 날 경우 체벌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등 아이에 대해 수용적인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언어와 행동으로 표출하는 유형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 2유형을 '수용적 표출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 다. 제 3유형: 감정적 수용형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4명 중 4명으로 평균 나이 36.5세, 자녀수는 1-2명이었고, 배우자의 자녀양육협조 정도는 매우 협조적 2명, 대체로 협조적과 보통이 각각 1명이었다.

제 3유형이 크게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아이가 무슨 일을 잘 했을 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 $Z=1.82$ )', '아이에게 '네가 있어 기쁘다'는 등의 말을 표현한다( $Z=1.77$ )', '아이에게는 무엇이든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어 돈을 아끼지 않는다.

( $Z=1.49$ ), '집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하면 짜증을 낸다( $Z=1.44$ )',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외락 성을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 $Z=1.35$ )',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귀찮더라도 하게 한다( $Z=1.27$ )',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아이 혼자 TV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Z=1.18$ )'는 것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반면 '아이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Z=-2.00$ )',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거르는 때가 있다( $Z=-1.65$ )', '아내보다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Z=-1.24$ )', '아이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Z=-1.13$ )', '아이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Z=-1.02$ )'에 강한 부정을 하였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 즉, 표준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하루 중 시간을 아이 혼자 TV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아이에게는 무엇이든 최고급으로 해 주고 싶어 돈을 아끼지 않는다', '집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하면 짜증을 낸다'였으며, 타 유형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아이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방해하지 않고 마음껏 하도록 둔다', '아내보다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로 나타났다.

제 3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를 나타낸 27번 대상자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이는 편이라고 하였는데 평소에도 식사는 자신이 직접 요리해서 아이들에게 먹인다고 하였다. 이 대상자는 아이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는 자신도 자라는 환경 속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이에게 무엇이든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다는 것에 가장 긍정하였는데 이는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줌으로써 자신도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 3유형의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으며, 아이에게 신체적, 언어적 애정 표현을 잘하고, 아이에게 물질적인 부분을 아끼지 않고 채워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아이의 교우관계나 아이의 자율적 활동과 놀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아이가 잘못하거나 소란스러울 때는 짜증을 말로 표현하는 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 3유형을 '감정적 수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4. 유형별 강하게 찬성 또는 반대하는 진술문

	강한 찬성	표준점수
유형1: 관용적 수용	06 아이를 대할 때 따뜻하고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한다.	1.84
	15 아이가 무슨 일을 잘 했을 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	1.77
	05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는데 까지는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애쓴다.	1.73
	09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방해하지 않고 마음껏 하도록 둔다.	1.43
	03 아이에게 '네가 있어 기쁘다'는 등의 말을 표현한다.	1.17
	강한 부정	
	25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거르는 때가 있다.	-1.05
	22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서 불평한다.	-1.21
	20 아이 때문에 화가 날 경우 아이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66
	17 아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화부터 내는 편이다.	-1.98
유형2: 수용적 표출	강한 찬성	
	20 아이 때문에 화가 날 경우 아이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2.32
	09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방해하지 않고 마음껏 하도록 둔다.	2.07
	28. 아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다.	1.16
	05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는데 까지는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애쓴다.	1.09
	18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와락 성을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	1.00
	강한 부정	
	31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아이 혼자 TV 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1.11
	16 아이에게 알맞은 음식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1.15
	26 아이에게 해주기로 한 일들을 잊어버린다.	-1.28
21 아이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1.48	
29. 나는 자녀 양육이 즐거울 때보다는 짐스러운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	-1.54	
22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서 불평한다.	-1.56	
유형3: 감정적 수용	강한 찬성	
	15 아이가 무슨 일을 잘 했을 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	1.82
	03 아이에게 '네가 있어 기쁘다'는 등의 말을 표현한다.	1.77
	08 아이에게는 무엇이든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어 돈을 아끼지 않는다.	1.49
	19. 집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하면 짜증을 낸다.	1.44
	18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와락 성을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	1.35
	01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귀찮더라도 하게 한다.	1.27
	31.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아이 혼자 TV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1.18
	강한 부정	
	32 아이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1.02
21 아이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1.13	
11 아내보다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1.24	
25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거르는 때가 있다.	-1.65	
27 아이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2.00	
공통문항	21 아이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1.07
	22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서 불평한다.	-1.14

## 라. 유형 간 일치항목

본 연구에서 분석된 세 유형은 각각의 독립된 특성을 지녔으나 총 2문항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었다(표 4). 세 유형 모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 불평한다( $Z=-1.14$ )는 것과 아이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Z=-1.07$ )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 IV. 논의

학령전기는 아동의 언어와 사회성 및 창조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김미예 외, 2010)로, 이 시기 동안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인지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부부관계의 향상과 아버지 자신의 심리사회적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Gaetner et al., 2007).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사용하여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 및 각 유형별 특성과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관용적 수용형', '수용적 표출형', '감정적 수용형'의 세 유형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유형별 특성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 1유형은 '관용적 수용형'으로, 이들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애정을 가지고 대한다. 또한 아이의 요구에 화를 내거나 체벌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절제할 줄 알며, 타인에게 내 아이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 아버지들이다. 이를 김명애 외(2013)의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구에서 나타난 '관용적 수용형'과 비교해 볼 때, 아버지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인정하지만, 어머니는 아이의 기분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민감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가 애정을 가지고 자녀의 자율성을 키워준 경우 아이는 또래에게 친절하고 또래와의 놀이에서도 협력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되어(양경수, 2011),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능동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된다(권영임, 2012). 제 1유형을 일반적 배경에 비추어 분석해본 결과, 배우자

의 양육협조 정도를 타 유형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어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타 유형보다 낮고, 평균 연령이 타 유형보다 높은 점은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상태와 관련하여 대상자 2번, 15번, 18번은 자신의 경제 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을 추가 면담한 결과, 대상자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나 현재 맞벌이를 하지 않고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비가 위축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보면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낸다고 한 조하영과 박성연(2013)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며, 관용적 수용형의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상태와 결혼만족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유형인 ‘수용적 표출형’은 아이에 대해 관심이 많고 아이의 사소한 질문에도 성의 있는 대답을 하려고 노력지만 칭찬에 인색하고 체벌을 가하기도 하는 등 양가감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의 아버지는 행동적으로 폭력성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김명애 외(2013)의 어머니 연구와 공통점이 있지만, 아버지는 아이가 일상생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어머니는 남편보다 아이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아이 친구에게까지 그 관심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부모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권위 있는(authoritative),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보호적(protective)인 양육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Gaertner et al., 2007), 이 중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 중에 아이와의 놀이나 목욕시키기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아동기 때 권위적인 양육환경을 경험한 아버지들은 분노와 갈등이 내면화되면서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폭력성이 높아져 자신도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수 있다고 한 권영임(2012)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제 2유형을 일반적 배경에 비추어 분석해본 결과, 배우자의 양육협조 정도를 타 유형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배우자에게 심리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거나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Laurent et al., 2008), 반대로 자녀에 대해 온정적이기 보다 거부적인 측면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우 부부 갈등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Schacht & Cummings, 2009). 이는 양육협조 정도와 부부 관계, 부부 관계와 자녀양육 태도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받은 양육태도, 부부의 의사소통 내용과 관계의 원만성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제 2유형의 아버지는 배우자의 양육협조 정도를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타 유형의 아버지보다 양육에 대한 관여 정도가 깊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아버지가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비지지적인 직장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경우, 피로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져 자녀에게 더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으므로(Goodman et al., 2011) 수용적 표출형의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을 확인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3유형인 '감정적 수용형'의 아버지는 아이의 자존감을 존중하고, 훈육을 위해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지켜서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수용적 표출형의 아버지처럼 매를 드는 등의 체벌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자신의 휴식시간을 방해하는 경우 짜증을 표현하기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처를 사용한다. 아이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감정적 수용형의 아버지는 배우자의 양육협조 정도를 대체로 협조적이라고 생각하여 수용적 표출형의 아버지보다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유형의 아버지는 자녀양육을 잘하고 싶은 생각은 강하나 양육방법을 잘 모르고, 바쁜 직장생활과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권영임, 2012),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교육기회와 자존감을 높여준다(Marks & Palkovitz, 2004)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짜증이나 소리 지르기와 같은 훈육이 지나치면 아동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Brown et al., 2007),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이후 발달단계에서 중요성을 가진다(Pleck, 2007)는 점에서 이러한 양육태도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감정적 수용형의 아버지들에게는 시대적으로 변화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들의 성역할 재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공통적으로 자녀 양육 및 훈육의 책임을 자신에게 두고, 아이 친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또래관계 형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있어 애정적 태도를 나타내며 또래와의 놀이를 통한 협력활동을 장려한다는 연구결과(박정연 · 이

성희, 2009)와 맥락을 같이한다. 아버지가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경우 학령전기 아동의 친사회성이 높아지고 정서조절 능력이 발달된다(채영문, 2010)는 점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학령전기 아동의 사회화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가 자녀양육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한다(권인수, 2013). 특히 어머니는 임신기부터 신체적, 심리적으로 태아와 연대감을 갖는 반면 아버지들은 산전교실에 참여할 기회가 적고 아기가 태어난 후에야 비로소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어머니보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해 수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유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응답과 격려를 나타내는 관용형, 자녀 양육에 대한 양가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표출형, 아이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예의범절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짜증이나 언성을 높이는 감정형의 양육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을 공통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일의 무급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2년부터는 5일로 확대하고 이중 3일을 유급화하여 남성들의 실제 사용을 독려하면서(홍승아 · 이인선, 2012)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통해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조직문화는 아직까지 일이 가정에 우선해야 한다는 통념이 지배적이고, 국내 · 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비공식적인 시간과 노력까지도 업무에 더 많이 투자하기를 원하는 분위기 때문에 아버지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일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유계숙, 2008).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회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에서 아버지가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이 480일이고, 그중 첫 15개월은 월급의 80%를 보장하지만 직장과 배우자의 태도, 재정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는 전체의 22%정도로 낮다(Wells & Sarkadi, 2012)는 점을 통해 볼 때 이 문제는 국내 · 외를 막론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여전히 낮게 인식되고 있고, 특히 아동의 위생, 수면, 건강유지 및 회복에 대한 양육참여는 소극적인 것(허보윤 · 한경자, 2009)으로 나타나 이러한 영역의 양육참여가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정적 압력으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며, 자녀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전 생애에 걸쳐서 발달하는 존재이다(권인수, 2013).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이해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녀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 어려움과 요구 등의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각 유형별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을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유형별로 적합한 양육태도를 마련하기 위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양육관련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주관성을 살펴본 결과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관용적 수용형, 자녀양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화가 날 경우 자녀에게 체벌과 함께 부정적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는 수용적 표출형, 건강한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알고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화가 날 때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감정적 수용형 등 세 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학령전기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의 유형을 파악한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유형별로 적합한 양육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이 차별화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형별 양육태도에 따른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파악된 양육태도 유형을 기초로 하여 양육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남성의 삶과 경험에 대한 이해 및 남성의 성역할재사회화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  
Q방법론적 연구

김명애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간호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계명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 중년기 발달이며, 노인건강증진, 가족발달, 중년기 적응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nurkma@kmu.ac.kr)

남승희는 계명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계명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발달, 중년기건강증진이다.  
(E-mail: namsei79@gmail.com)

박은실은 계명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구과학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치매 노인 간호이다.  
(E-mail: silver7623@gmail.com)

박은아는 계명대학교에서 간호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부경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 중년기 발달이며, 아동발달, 중년기건강, 다문화간호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oundness@pknu.ac.kr)

## 참고문헌

---

- 강상, 권가영, 류경희(2013).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적 양육태도: 정서지능과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34(4), pp.329-356.
- 김미예, 권인수, 김수옥, 김은경, 김태임, 문진하 외(편)(2010). *최신 아동건강간호학 총론*. 서울: 수문사.
- 김명애, 박은아, 남승희, 박정연(2013).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주관성. *주관성연구*, 26(1), pp.23-38.
- 김영희, 김신정(2008).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이용한 학령전기 아동 아버지의 양육태도. *아동간호학회지*, 14(1), pp.79-89.
- 김원자, 서경현(2013).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경계선 성격 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3), pp.517-533.
- 김정주, 김용미(2011).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아동기 경험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 20(1), pp.113-129.
- 김종훈, 양소영, 성지현(2013). 아동학회지: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원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매개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4(1), pp.87-102.
- 김흥규(2008). *Q 방법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인수(2013). 아동간호학에서의 아버지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 경향과 전망.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19(2), pp.69-75.
- 권영임(2012). 아버지의 아동기 경험과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보육행정연구*, 16(2), pp.125-142.
- 박정연, 이성희(2009).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Montessori 교육연구*, 14(1), pp.40-57.
- 신나리(2013).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둘째자녀 출산의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22(3), pp.405-420.
- 안라리, 박화운, 신인영(2013).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pp.2645-2652.

- 이영미, 민하영(2006). 아버지의 유아 양육 참여에 대한 가족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유아 기질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pp.93-101.
- 양경수(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9(2), pp.75-84.
- 유계숙(2008).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근로자의 일-가족 조화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pp. 27-37.
- 장수미, 황영옥(2007). Q방법론을 활용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2), pp.223-249.
- 조하영, 박성연(2013). 아버지의 양육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3), pp.59-74.
- 채영문(201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사회적 능력. *영유아교육연구*, 13, pp.117-132.
- 채진영(2011).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5), pp.75-83.
- 홍승아, 이인선(2012).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허보윤, 한경자(2009).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 우울. *부모·자녀 건강학회지*, 12(2), pp.131-146.
- 현정환(2004). 아버지의 아동발달의 이해 및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어머니와의 비교를 통하여. *수산해양교육연구*, 16(2), pp.171-180.
- Bailey, J. A., Hill, K. G., Oesterle, S., Hawkins, D. (2009). Parenting practices and problem behavior across three generations: Monitoring, harsh discipline, and drug use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45(3), pp.1214-1226.
- Brown, G. L., McBride, B. A., Shin, N., Bost, K. K. (2007). Parenting predictors of fathering attachment security: Interactive effects of father involvement and fathering quality. *Fathering*, 5(3), pp.197-219.
- Craig, L. (2006). Does father care mean fathers share? A comparison of how mothers and fathers in intact families spend time with children. *Gender & Society*, 20(2), pp.259-281.

- Fagan, J., Palm, G. (2004). *Fathers and early childhood program*. New York: Delmar Learning.
- Gaertner, B. M., Spinrad, T. L., Eisenberg, N., Greving, K. A. (2007).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s correlate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4), pp.962-976.
- Goodman, W. B., Crouter, A. C., Lanza, S. T., Cox, M. J., Feagans, L. V. (2011). Paternal work stress and latent profiles of father-infant parenting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3), pp.588-604.
- Hoeve, M., Dubas, J. S., Gerris, J. R., van der Laan, P. H., Smeenk, W. (2011).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Unique and combined links to adolescent and early adult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ce*, 34(5), pp.813-827.
- Laurent, H. K., Kim, H. K., Capaldi, D. M. (2008). Prospective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on child attachment security and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s' romantic attach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3), pp.377-388.
- Liber, J. M., van Widenfelt, B. M., Goedhart, A. W., Utens, E. M., van der Leeden, A. J., Markus, M. T., et al. (2008). Parenting and parental anxiety and depression as predictors of treatment outcome for childhood anxiety disorders: has the role of fathers been underestimated?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7(4), pp.747-758.
- Mallan, K. M., Nothard, M., Thorpe, K., Nicholson, J. M., Wilson, A., Scuffham, P. A. et al. (2013). The role of fathers in child feeding: Perceived responsibility and predictors of participation.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31, pp.1-8.
- Marks, L., Palkovitz, M. R. (2004). American fatherhood types: The good, the bad, and the uninterested. *Fathering*, 2(2), pp.113 - 129.
- McGill, B. S. (2011). *Navigating new norms of involved fatherhood: employment, gender attitudes, and father involvement in American famili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USA.

- Newland, L. A., Coyl, D. D., Freeman, H. (2008). Predicting preschoolers' attachment security from fathers' involvement, internal working models, and use of social suppor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8, pp.785-801.
- Pleck, J. H. (2007). Why could father involvement benefit children? Theoretical perspectives.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11(4), pp.196-202.
- Rina, E. M., Feinberg, M. E. (2012).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mothers' and fathers' adjustment.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pplied Family Studies*, 61, pp.836-850.
- Rohner, R. P., Khaleque, A., Cournoyer, D. E. (2005).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theory, methods, cross cultural evidence, and implications. *Ethos*, 33(3), pp.299-334.
- Sarkadi, A., Kristiansson, R., Oberklaid, F., Breberg, S. (2008). Fathers' involve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Acta Paediatrica*, 97(2), pp.153-158.
- Wells, M. B., Sarkadi, A. (2012). Do father-friendly policies promote father-friendly child-rearing practices? A review of Swedish parental leave and child health cent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1, pp.25-31.
- Whiteside-Mansell, L., Bardley, R. H., McKelvey, L. M. (2008). Validity of the short form of the parenting stress index for fathers of toddle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1), pp.102-111.
- Wilson, K. R., Prior, M. R. (2011). Father involvement and child well-being. *Journal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47, pp.405-407.



## The Type of Rearing Attitudes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Q Methodological Approach

**Kim, Myung Ae**

(Keimyung University)

**Park, Eun Sil**

(Daegu Science University)

**Nam, Seung Hee**

(Keimyung University)

**Park, Eun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It is expected that fathers' active rearing involvement and attitude could be linked to children's exciting experience and lower mothers' rearing str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rearing attitude that promote positive development among preschoolers. Q-methodology was used to identify the subjective cognit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earing attitudes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by applying 32 Q statements to 34 subjects. The data were examined by the QUANL PC program. The child-rearing attitudes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ere classified into 'Generous and receptive', 'Receptive and projective', 'Emotional and receptive'. The commonality among the three types were reluctant to express their child's disadvantages to others and dislike visiting by children's friends. In sum, such a case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y thought that they have responsibility for their child's development as parent, and want to be a good father as his role. Therefore, fathers should be understood and coordin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se characteristics.

---

**Keywords:** Rearing Attitude, Preschool Children, Father, Q-methodology